

MBC '궁'에 일본 금치훈장이?

머니투데이 유순호 / 입력 : 2006.02.22 12:10



시청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MBC 수목미니시리즈 '궁'에 일본 훈장과 흡사한 소품이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극중 율(김정훈)이 공식 행사에 입는 제복의 휘장 위에 걸려진 훈장이 그것으로, 일본의 무공훈장 격인 금치훈장과 문양이 일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치훈장의 정식 명칭은 훈일등욱동화대수장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공을 세운 일본군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훈장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조사결과 이 훈장을 받은 알려지지 않은 친일파가 상당수 있다고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극중 등장하는 훈장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거의 일치하며 특히 가운데 박힌 원형의 일장기 문양이 일치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상을 담당하는 제작진 관계자도 극중 사용된 훈장이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22일 "극중 사용할 훈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모 드라마에서 사용됐던 훈장들을 다량으로 빌려왔다. 그런데 그 중 딱 하나의 훈장에 일장기 문양이 들어있어 문제가 됐던 것 같다"며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결과로 지적이 있는 후로는 그 훈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훈장은 제작진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다"고 해명한 뒤 "극중 율이 입는 옷은 대한제국 때부터 입던 옷을 복원한 대장복이라는 것으로, 세세한 부분에도 왕실 고유의 이화문양을 세겨 우리의 전통을 복원하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한편 '궁'의 한 시청자는 스타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금치훈장은 일본인들이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훈장"이라며 "일본인 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 '너희 나라는 친일파는 비난하면서 어떻게 드라마에 그런 훈장을 쓸 수 있냐'는 말을 해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고 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설명='궁'에서 율(김정훈)이 입는 대장복과 휘장위에 달린 문제의 훈장(위), 일본 금치훈장(아래)>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s://star.mt.co.kr/stview.php?no=2006022211532761981&type=3>

 인쇄하기

 닫기